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1심 패소로 이미 나간 돈까지,
항소심에서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5,000만 원 청구 전부 방어

항소심 역전

1심 취소 · 가지급금 약 4,520만 원 반환 명령



인 천 지 방 법 원

제 6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고, 피항소인

구상금

피고, 항소인

법무법인 해율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7. 24.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45,200,11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4.부터 2024.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전기공사를 둘러싼 정산 분쟁에서 의뢰인 회사는 구상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그 판결에 기초해 돈을 추심했고, 항소심에서는 공사대금과 대여금 주장도 추가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새로운 청구를 막는 일과 이미 지급된 돈을 돌려받는 문제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뒤에 항소할 수 있는지도 먼저 검토해야 했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법원은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뒤 상대방의 청구 근거를 각각 살폈습니다. 대신 지급했다는 임금의 실제 사용자, 하도급 정산 방식, 이미 받은 공사대금과 추심금이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송금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용증과 변제기·이율 논의가 있었는지 등 거래의 실질을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1심 취소 · 가지급금 약 4,520만 원 반환 명령

받아야 할 돈과 막아야 할 청구,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1심 패소 뒤 돈까지 추심당한 회사. 해울은 청구 전부를 막고 약 4,520만 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하도급업체가 임금과 공사대금을 겹쳐 청구한다면?
- 정산을 마쳤는데 또 빌려준 돈이라고 요구한다면?
- 송금 내역만으로 대여금 책임을 주장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울과 함께한 소송

법무법인 해울은 항소한 의뢰인 회사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정산 내역과 이미 추심한 돈을 반영하면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지 않는다고 보았고, 별도 대여금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의 가집행으로 나간 돈의 반환도 함께 구했습니다. 불리한 판결을 뒤집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판결로 이미 발생한 지급 문제까지 정리한 소송입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약 4,520만 원의 가지급금과 이자를 의뢰인에게 반환하도록 명했습니다.

실제 입금 완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추심된 금액에 대한 반환 근거를 확보한 결과입니다. 공사 정산에서 여러 명목의 청구가 겹쳤다면 지급 자료와 추심 내역까지 연결해 실제 남은 채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 패소 뒤 돈까지 추심당한 회사. 해울은 청구 전부를 막고 약 4,520만 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울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1심 패소 뒤 돈까지 추심당한 회사. 해울은 청구 전부를 막고 약 4,520만 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 1심 가집행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 복잡한 기성금과 세금계산서 내역을 다시 맞춰야 한다면?
- 모르는 사이 판결이 내려져 회사 돈이 추심되었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